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실질 국내총소득(GDI)과 국내경제

- 2011년 1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(GDI)*은 성장이 크게 둔화됨.
 -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동기대비 4.2% 성장하여 소폭 둔화된 가운데 4%대 성장률을 유지했으며, 전기대비로도 1.4% 성장함에 따라 4분기 연속 둔화세에서 회복세로 전환됨.
 - 하지만 실질 국내총소득(GDI)은 전년동기대비 1.6% 성장해 큰 둔화세를 나타냈고, 특히 전분기대비로는 0.6% 감소함.
 - 실질 국내총소득(GDI)이 전기대비 감소한 것은 2008년 4/4분기 0.6% 감소한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임.
 - * 국내총소득(GDI)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.
- 실질 국내총소득(GDI) 감소는 국내 수출제품 가격하락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수입제품 가격상승이 초래한 교역조건 악화가 그 원인으로 지적됨.
 - 주요 수출제품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(LCD) 가격은 각각 10.3%, 12.2% 하락했으나 주요 수입제품 가격인 원유, 석유 및 석탄제품, 비철금속제품 가격은 각각 21.1%, 12.1%, 14.7% 상승함.
 - 2011년 1/4분기 교역조건은 전기대비 3.6% 하락하여 2008년 3/4분기 4.9% 하락한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.
- 1/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소비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이 약화됨.
 -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수출의 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며 이는 구매력 관점에서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함.

(2011년 1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등, 한국은행 등, 4/27)